

시론 《평화》의 외피속에 버려지는 대결의 칼

남조선당국이 넘볼처럼 위어난 《평화》타령의 대결적본색이 날이 갈수록 적라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도 련이어 벌어지는 동족대결의 전쟁연습이 그에 대한 실증이다. 지난 10월말부터 남조선에서는 대규모의 작전사령부급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정부》급훈련인 《을지태극》과 련동되어 벌어지더니 11월에 들어서서는 외세와 야합한 연합공중훈련도 공공연히 강행되었다. 공화국의 주요시설들에 대한 공중기습타격능력을 숙달하기 위한 목적밑에 수백대의 군용기들을 동원하여 벌어지던 대규모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해 이번의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에는 200여대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이런 무분별한 행동들은 남조선당국이 말로는 《평화》를 운운하지만 동족을 해치려는 칼을 거두지 않고있음을 말해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본토의 무력은 참가지 않는다. 훈련규모를 축소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중언부언하지만 명칭이 바뀐다고 침략적성격이 달라질 수 없으며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하여,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결본성이 약화되거나 가리워질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동족에 대한 적대사와 공격기도가 뚜렷한 전쟁연습들이 평화와 너무도 거리가 멀고 그것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직접적위협으로 된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바이다. 남조선당국이 전쟁연습을 벌일 때마다 《내륙적》, 《방어적》이라는 수식어를 곁들였지만 그러한 꾀변은 저들이 해마다 동족대결의 불장난을 계속해왔다는것을 스스로 인정했거나 다름없다. 그 무은 《한미동맹》유지와 연합방위태세강화의 명목으로 울헤에 들어와

9월까지만도 총 146차의 연합야외기동 훈련들을 실시하고 군비증가물도 보수 《정권》때보다 현저히 높은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의 머리에 동족대결의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보여 주고있다. 부언하건대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침략적이고 호전적인 외세와의 대결모의, 전쟁연습을 매일과 같이 벌이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 동족과의 화해를 운운하는것은 막의 씨앗을 심고 덕의 열매를 바라는 어리석은 망상이다. 남조선당국이 동족이라고 하면서도 《주적》으로 대하는 편견적인 시각과 이중적인 태도, 《평화》의 외피속에 동족대결의 칼을 가는 적대시적관점과 정책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계속 멀어지지만 할것이다. 외세와 야합한 동족대결, 전쟁대결을 언제까지 지속시키려는가. 정 필

해소될수 없는 사회적악성병폐

남조선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임시고용노동자를 의미하는 비정규직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에 비해 임금이 적으며 각종 차별과 학대, 항시적인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하여 사실상 잠재적인 실업자나 다름없으며 남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커다란 사회적문제대상으로 되어왔다. 그런데 오늘날 날로 장기화되고있는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악화되는 경제위기에 자급난,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기업체들이 로임이 낮고 해고하기도 쉬운 비정규직을 늘이는데 경쟁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보다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있는것이다.

얼마전 남조선통계청이 발표한데 의하면 올해 8월현재 비정규직근로자는 806만 6000여명으로서 지난해보다 64만명이나 늘었으며 이것은 2016년 8월보다는 159만여명이나 더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비정규직근로자가 800만명을 넘어 임금근로자의 40%를 차지하고 그중 대졸이상 비정규직근로자가 280만명을 넘은것은 판관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20대청년들이 비정규직근로자로 많이 전락되어 커다란 사회적문란을 야기시키고있다고 한다. 실제로 20대 임금근로자 353만 7000여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무려 141만 4000여명으로서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20대 비정규직근로자가 지난 한해동안에만 13만여명, 최근 5년동안 30만여명이나 더 늘어나고 2016년에 비해 5.5%나 증가한것으로 된다고 한다. 비정규직의 확대로 하여 정규직도 언제 비정규직으로 전락될지 모른다는 사회적불안이 고조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은 임기내에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요란하게 떠들던 현 《정부》의 성적표가 매우 초라하다. 이것은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실패해왔다는것을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비난하였다. 근로대중을 자본의 노예, 말하는 로동도로 여기는 황금만능의 남조선사회에서 비정규직근로자문제는 영원히 해소될수 없는 사회적악성병폐로 만연되고있다. 본사기자 안권일

높아가는 정치불신, 늘어나는 무당층 - 남조선언론, 전문가들 비평 -

남조선언론들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혐오감과 불신이 고조되고있는데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있다. 현재 여야당의 후보들중 누구도 민심의 확고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대세론》은 고사하고 《비호감도》가 60%이상으로 지지률의 2배에 달하고있으며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며 동 지난 시기의 선거투표과는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 나타나 언론의 주목을 끌고있다. 남조선의 정치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현재 《대통령》선거를 눈앞에 두고 후보들이 《비호감》 1, 2위를 다투는 것은 류례가 없는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감이 없다는것을 실증하는 이번 선거의 특징이다. 피할수 없는 《력대급 비호감선거》라고 비평하였다. 남조선의 《뉴스1》은 《다움기 대선》(비호감율리프) 앙상으로 전개되고있다.고 전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무당층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상정황까지 관측되면서 레전 대선에서 투표율 급락사태가 초래될수 있다.》고 평하였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 힘》 홍준표, 윤석열대선후보의 비호감도가 각각 59%, 62%에 달했다. 윤석열후보는 비호감도가 호감도를 두배 넘어선 수치다. 선거일이 가까와올수록 중도층과 무당층이 특정후보에 쏠리던 과거 대선과 달리 거꾸로 비호감이 늘어나는 역현상이 나타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 현직전문가들은 《정치량국화, 상대진영 혐오분위기, 후보들의 도덕성문제》 등으로 꼽으며 《이번 대선》이 류례없는 비호감선거가 될것이라고 예 평하였다. 외신들까지도 남조선에서 이번 《대선》을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말이 나오고있는데 대해 전하면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정치권은 분열될것이라고 야유하였다. 이른바 정치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사회와 국민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과 권력욕에만 미쳐 돌아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민심의 배척을 받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실이다. 강영진



남조선에서 지난 5일 《대선》후보출마를 위한 《국민의 힘》의 경선이 막을 내렸다. 모라는 권력이라는 먹이감을 앞에 놓고 저돌이 으르렁거리는 니진투구의 싸움이 일관락을 지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분수야당의 추악한 리면을 파헤쳐본다

《막말배설당》에 대한 민심의 평가

《대선》으로 향한 《국민의 힘》의 경선과정은 서로가 짓밟고 서로에게 짓밟히우는, 마치 동물들의 치렬한 생존경쟁과 흡사했다. 인물난에 허덕이던 《국민의 힘》안에 별의별 권력야심가들이 다 몰려들어 저저마다 출마를 선언했으니 그중에는 당을 틀라락한 자도 있었고 귀퉁이까지 날아든 귀퉁이와 같은 어중이떠중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후보풍선》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쓸만한 인물을 찾지 못했으니 정작 무지에서 벌이고르기보다 더 힘들었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대립과 갈등은 말그대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방불케 했다. 처음부터 《굴러온 돌》과 《배긴 돌》, 《돌고래》와 《멸치》, 《고등어》로 《격》이 나뉘어 후보들사이의 대립이 인신

공격과 막말비난전으로 그 도수가 높아지면서 남조선민심이 평한것처럼 《점점 곱잡힌 경선에 이르렀다》고 치 달았다. 남조선언론들도 《싸움군을 뽑는 선거》, 《후보들사이의 니진투구》이라며 《국민의 힘》의 경선을 련일 대서특필하는 속에 불과 며칠전까지도 후보들사이에는 누가 막말을 더 잘하는가 뽐내기라도 하듯 치렬한 비난전이 이어졌다. 홍준표측은 《윤 전 검찰총장은 현 정권이 설치한 의혹의 시한폭탄을 주렁주렁 달고있는 후보》라고 폭탄공격하다 못해 윤석열이 《국민의 힘》소속 《국회》의원들을 《영입》하여 세력을 확대하고있는데 대해 《홀러 다 정치인들 모아 골목대장노릇하는것도 며칠 남지 않았다. 파 리에는 썩은 곳에만 몰려든다.》

고 로폭적인 악의를 표시하였다. 이에 윤석열측은 홍준표를 《준비가 전혀 안된 빈강통후보》, 《막말하는 경주다이어》, 《여당지지자들이 경선개입해서 교란 일회후보》 등으로 반격을 가했다고 한다. 뒤질세라 류승민도 《부인과 장모의 온갖 비리후폭, 막말, 땅과 언연태도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정채도 토론도 준비 안된 후보들》이라며 윤석열과 홍준표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경선분위기를 한껏 부채질하였다. 후보들간에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속에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사를 발표했다는 허위급, 류승민과 홍준표의 단일화설을 밝힌 종이쪽지 등이 나돌고 후보지지자들사이에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오죽하면 《국민의 힘》내부에서

독기서린 광고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격투속에서도 《국민의 힘》 예비후보들이 한결같이 한 소리가 있다. 《정권교체》하면 맨 처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니 여당 《대선》후보를 감옥에 넣겠다는것이. 홍준표는 《리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구속된다.》고 공개발언했고 원희룡은 《림에서 아니면 링밖에서 리재명을 반드시 구치소에 보낼것》이라고 했다. 윤석열과 류승민도 대장동계발 특혜의혹을 곁들리며 같은 소리를 하였다.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리재명은 감옥에 간다고. 경쟁상대자를 감옥에 보내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파보면 자기들의 정치적적수인 진보세력들의 대낮으로 감옥에 넣겠다는 홍심이 아닌가싶다. 실제로 윤석열은 자기가 권력을 쥐면 《법치만은 반드시 세우겠다.》고 고야했는데 남조선민심은 그가 《검찰공화국》을 확대하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광주시민들의 피로 두손을 적신 살인악당 전두환이 정치를 잘라냈다고 뇌가리는 윤석열이나 《유신》독재자를 《계승》하겠다고 떠드는 이여의 인물들이 정치적적수를 감옥에 보내는것쯤은 능사로 할것이지 분명하지 않은가. 리재명을 감옥에 보내는것과 함께 그들이 하겠다는것이 또 하나 있다.

《또 철수?》

남조선에서 《국민의 당》대포 안철수가 다음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였다고 한다. 출마선언문이라는데서 그는 《대선》이 다가와도 《나쁜놈》, 《이상한 놈》, 《추한 놈》만 있어 격정이라면서 자기가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실현하겠다고 기업을 뽐냈다는것이다. 선거때마다 여러번 출마하여 간보지만 하다 철수하곤 하여 《간철수》라고 하더니 그의 《선거출마명》이 또 도전 모양이다. 이번에도 여야당사이의 치렬한 싸움으로 정치적관심층이 늘어나자 그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대선》경쟁의 막판에 영향력을 행사해보려는 타산으로 출마했다는것이 현직언론들과 전문가들의 평이다. 《정권교체》라는 명분으로 보수세력의 간을 보고, 《시대교체》라는 달콤한 말로 중도층의 간을 보다가 되면 좋고 안되면 또 철수하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 끌어모으려는 《국민의 힘》 것들이 《가치동맹》, 《단일

화》 등 넌지시 추파를 보내오자 안철수는 야당후보가 《양보》하면 《정권교체》를 이룰 자신이 있다고 까지 뽐내며 기세를 높였다. 정계무대에 나서 처음 몸을 잡고있던 진보세력을 등진 배신자가 《정권교체》를 운운하니 참 《나쁜 놈》이고 권력이라면 친혈육도 차버리는 《국민의 힘》것들에서 《양보》를 바라보고있으니 《이상한 놈》, 저를 차버린 보수세력에게 또 기신기신 계바라들려고 하니 《추한 놈》이 아닐수 없다. 능력이 없어 겨우살이처럼 남의 등에 업혀 살고 주대가 없어 바람양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인간이 정치를 할다면 무엇을 제대로 하겠는가 하는것이다. 남조선민심은 안철수의 등장도 선거관이 복잡해졌다고 하면서 그가 혼자서는 선거에서 이기기 힘들고 보수세력의 압박도 이겨내기 힘들기때문에 《국민의 힘》과 후보단일화를 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이이 하던가 아니면 또 철수할것이라고 하고있다. 《또 출마? 결국 또 철수?》 현재 가문 《정치철재》, 《간철수》노릇을 그만두겠는지. 김정혁

10월 26일

10월 26일은 남조선에서 《유신》독재자가 자기 줄개의 총탄에 맞아 비명횡사한 날이다. 열흘전인 바로 그날에 《유신》독재자와 전두환의 뒤를 이은 《6공》의 군부독재자가 병으로 사망했다. 우연한 일처럼 보기에만 보기에선 너무도 신동하여 력사를 다시 되새겨보게 해준다. 국악무도한 파초춤에 매달리다가 력사의 심판을 받고 황천객이 된 《유신》독재자처럼 《6공》의 군부독재자도 5.18광주인민봉기를 피로 물들인 죄인의 값을 치른것은 아닌지.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로태우》는 전두환과 다르다. 《최소한의 례우》를 운운하며 《국가장》을 치르려주었다는것이다. 이때라든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세력도 로태우의 《성과》를 떠벌이었다고 한다. 천후에 용납 못할 죄악도 살인마가 죽으면 《용서》가 되고 무덤속에 함께 묻히게 되는가고 하면서 남녘의 각계는 분노를 터치고있다. 상처는 아물어도 흠집은 남는 법인데 《유신》독재자와 그뒤를 이은 군부파 초독재자가 저지른 죄악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살인악당 전두환과 로태우에게서 사회도 받아내지 못

하고 력사의 판결도 내리지 못한것으로 하여 광주의 영령들은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있으며 그 유가족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 아니 온 남녘민심이 분노의 주먹을 풀지 못하고있다. 독초는 뿌리채 들어내지 못한 화원을 못쓰게 만들 거마련이다. 오늘도 광주인민봉기를 《폭도들의 란동》이라 매도하고 그들의 넋과 정신을 노략한 《남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도 막아나섰던자들이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 사죄할 대신 《유신》독재의 망령을 위해 눈물을 제하며 그를 《계승》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 군부독재자가 정치를 잘했다는 회머운 나발을 불어내고있지 않는다. 남조선의 보수세력은 독바자로 알아야 한다. 정의와 민주주의의 파괴자, 강탈자들의 종말이 어땠는지 지난 10월 26일이 다시금 상기시켜주고있다는 것을. 리훈혁

남조선대 학생 단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청년총궐기투쟁 선포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30일 대학생단체인 《진보대학생네트》가 서울에서 《불평등, 이번 생애 바꾸자! 청년총궐기투쟁》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단체는 선거철을 맞으며 여야당들과 후보들이 《2030세대》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앞을 다투어 선심성공약을 발표하고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열고있지만 선심성치원으로는 청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이 《2030세대》의 사망원인은 자살이다. 청년실업은 력대 최대치인 20%를 웃돌고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정실속제과로로, 로동안정미흡으로

